

# ‘CEO 세대교체’ 카드 꺼낸 보험사… 실적부진 돌파구?

보험사 당기순익 10년만에 최저 현대해상, 다시 각자 대표체제로 롯데손보, 대주주 바뀐 후 첫 주총



전영목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 부사장,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김인석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장. /각사

지난주부터 보험사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다. 저금리·저출산·저성장 등 3중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업 영업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주요 보험사가 최고경영자(CEO) 세대교체를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하나생명 등은 주총을 열고 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 ◆ 세대교체 나선 보험사

지난 19일 삼성생명은 주총에서 전영목 사장을 선임했다. 전 사장은 삼성생명에서 투자사업부장, 자산운용본부상무, 자산PF운용팀장 전무, 자산운용본부장 전무 등 주로 자산운용업무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CFO),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거쳤다.

현대해상은 지난 20일 주총을 열고

조용일 사장과 이성재 부사장을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7월 박찬종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8개월간 이철영 대표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던 현대해상은 이번 선임을 통해 다시 각자 대표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앞으로 조 대표는 회사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이 대표는 인사총무지원부문, 기업보험부문, 디지털전략본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는다.

조 대표는 1984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1988년 현대해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해상에서는 기업보험부문, COO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1986년 현대해상에 입사한 뒤 CCO(최고 홍보 책임자), 경영기획

본부, 자회사 현대C&R 대표이사, 기업보험부문 등을 거쳤다.

이날 롯데손해보험도 주총을 개최하고 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 이번 주총은 지난해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로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주총이다.

한화손보는 19일 주총에서 강성수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강 대표는 한화에서 경영기획실상무와 전무, 한화손보 재무담당 임원, 한화 재무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같은 날 하나생명 주총에서는 김인석 대표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외환은행에 입행해 통합 하나은행의 기업사업부장, 세종충북영역본부장, 대전세

중영역본부장, 기업사업본부 전무를 거쳐 중앙영역2그룹 총괄 부행장을 지냈다.

### ◆ 보험사 순이익 ‘뚝’… 세대교체로 실적 개선

보험사들이 CEO 세대교체에 나선 이유는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6.8% 감소하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3조1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85억원(22.8%) 감소했다. 손보사 당기순이익도 2조22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11억원(31.7%) 줄었다.

CEO를 교체한 보험사들의 성적을 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3% 감소했고, 현대해상은 25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2% 줄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문제는 경기 둔화로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낮은 데다 업황이 위낙 좋지 않아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성장·저출산·저금리의 3중고에 직면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위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하로 초저금리 진입이 예상돼 투자수익률도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제로금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내실 경영, 수익성 확보,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저축銀 순익 1.2조… 최대치 또 경신

금감원, 79개 저축銀 작년 당기순익 총자산 77조1000억 전년비 11% ↑ 기업대출 연체율 3.9%로 하락

지난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2019년 당기순이익은 1조27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대손충당금전입 규모는 줄었다.

총자산은 77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 늘었다. 총대출은 65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업대출은 법인대출 위주로 늘었다.

자기자본은 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1% 증가했다. 순이익 시현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늘었고, 유상증자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3.7%로 전년 말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대출채권 잔액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으로 연체율은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3.9%로 전년 말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법인대출이 0.5%포인트 낮아졌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0.3%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6%로 전년 말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신용대출은 2.5%포인트 낮아진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말 고정이자여신비율은 4.7%

로 전년 말 대비 0.4%포인트 하락하면서 5% 아래로 내려갔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로 전년 말 대비 2.2%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은 14.89%로 전년 말 대비 0.57%포인트 상승했으며, 규제비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양호하고,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신한금융 CEO가 직접관리 ‘디지털 후견인 제도’

모든 그룹사 협업… 시너지 강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은 23일 디지털 핵심기술을 각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그룹 경영회의에서 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T)이 성공하기 위해선 CEO 들의 디지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에 꼭 필요한 디지털 핵심기술을 선정해 후견 그룹사를 매칭하고 해당 그룹사의 CEO가 핵심기술의 후견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도록 지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를 비롯한 디지털 핵심기술과 헬스케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협업과제 발굴, 사업성 점검 등 종합적인 제도 관리 지원을 담당 그룹사 CEO들이 직접 추진하도록 했다.

먼저 AI는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맡기로 했으며,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빅데이터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분야는 신한금융투자, 블로체

인은 오렌지라이프,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신한생명이 각각 후견인으로 선정됐다.

다른 그룹사 CEO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디지털 후견인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모든 그룹사가 협업해 향후 원신한 차원의 디지털 협업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그룹경영회의에서 조 회장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 중 오직 3%만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신한금융의 DT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문화의 조화’, ‘CEO들의 디지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t@

## 생보사 온라인채널 ‘인기’… 초회보험료 130%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보사들의 온라인 채널의 초회보험료는 2015년 76억원에서 2019년 174억원(예상치)으로 4년 만에 130.5%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다. 특히 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계약유지율을 보면 온라인 채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온라인

〈온라인 채널 ’15년~’19년 초회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초회보험료	7,555	9,269	10,205	13,867	17,411

\*2019년 1~11월 수치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1~11월 평균\*12)

/생명보험협회

채널 계약유지율은 12회차 90%, 15회차 85% 이상이다.

기존에는 특정 질병, 급부만을 보장하는 간단상품(미니보험)이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에 걸쳐 다양한 테마를 적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상품이 대거 출시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

온라인 보험 상품은 각 보험사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가능하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해 편리하게 각 사의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을 권유하는 설계사에 의한 대면채널과 달리 고객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온라인 채널 특성상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김희주 기자

## 하나카드 “가정의달 맞이 해외직구 특급할인”

하나카드는 가정의달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해외직구 특급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10주년 빅세일 기간 동안 하나카드 할인 쿠폰 ▲하나카드 선정 해외 직구 쇼핑물 TOP10에서 이용 시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아이포터 및 몰테일 배송비 할인혜택 등이 제공된다.

우선 알리익스프레스의 10주년 기념 빅세일 기간(3월27일~4월1일)에 하나카드(신용·체크 포함)로 35달러 이상 이용 시 5달러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알리익스프레스 빅세일 이벤트는 사전 예열 기간(3월20일~27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빅세일 기간에 하나카드로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김희주 기자